

취업자 수 증감의 원인 및 전망

오상봉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- ◎ 2016년 4월에 취업자 수는 25만 2천 명 증가
 -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 축소로 전체 취업자 증가폭 축소

- ◎ 고용률은 전년동월과 동일. 다만 15~64세 고용률은 0.1%p 증가
 - 여성 고용률은 0.3%p 상승하였으나, 남성 고용률은 0.5%p 하락

- ◎ 60대 이상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
 - 청년은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여 양적 지표상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, 주요 정책 대상인 20대 후반은 좋지 않음
 - 20대 후반 졸업생의 고용률은 소폭 하락하고, 실업률은 크게 상승하였음
 - 20대 후반 졸업생의 상황도 악화되었는데, 제조업의 영향이 큼
 - 당분간 20대의 고용사정이 크게 호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임
 - 30~50대 남성의 고용률이 크게 하락하였는데, 최근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업종들의 영향이 여성보다는 남성에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임
 -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조업, 건설업, 도소매업, 정보통신업, 금융보험업 등에서 부진의 영향이 크며, 당분간 남성 고용률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

- ◎ 상용직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크게 감소
 -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
 - 제조업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
 - 음식숙박업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가 멈춘 것으로 보이지만, 도소매업과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영세한 자영업자의 감소는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

- ◎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폭은 확대되었으나, 제조업의 증가폭은 크게 축소되었음
 - 제조업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
 - 당분간 제조업 고용사정은 호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며, 하반기 이후에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고용사정 호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임
 - 도소매업의 고용 부진에도 음식숙박업,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, 보건복지업 등의 취업자 증가폭 확대로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
 - 기저효과를 고려한다면 하반기에는 고용사정 개선을 예상할 수 있지만, 구조 변화를 고려한다면 고용사정 개선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음
 - 농림어업의 취업자 감소가 6만 명으로 확대
 -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폭이 축소되는 추세는 유지되겠지만, 당분간 5만 명을 조금 넘는 감소폭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

- ◎ 종합하자면, 향후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